

일주문

불레협 제7회 찬불가 올림대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7회 찬불가 올림대회를 개최한다. (02)738-7860

통도사 청년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11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통도사 청년회 창립2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월정사 간경 수행학림 열어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12~15일 단기출가학교 졸업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산 스님 초정 간경 수행학림을 개최한다. (033)339-6616

수덕사 만공 스님 탄신 기념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은 스님은 3월 28일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 탄신 기념 보살계 수계 법회를 개최한다. (041)330-7700

선운사 오감으로 느끼는 동백꽃축제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4월 6-8일 선운사 일대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동백꽃축제를 개최한다. (063)561-1375

덕문 스님, 죽림정사에 500만원
경산 선봉사 주지 덕문 스님은 용성 스님 탄생성지인 장수 죽림정사에 탕화 조성 기금 500만원을 보시했다.

봉은사, 도심수행환경 3년기도 7회 입재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3월 16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도심 속 불교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천수다라니 독송 3년 대정진 기도의 7회에 입재했다.

효탄 스님 '금강경 강좌'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효탄 스님은 3월 19일부터 서울 마포 불교시민강원에서 매주 월요일 총 10회 조계종 표준 금강경 강의를 진행한다.

김종규 광화문문화포럼 회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겸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3월 7일 광화문문화포럼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용대 선수, 2012전영오픈 우승
불자 스포츠 스타 이용대 선수가 정재성 선수와 출전한 2012 전영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백만배 정진으로 개암사 중흥”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



노라고 서원했다. 부안 개암사의 새벽예불을 찾는 불자는 2명. 호남지역의 불교로는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 한 지역불자의 귀뜸이다. 이마저도 주지 재안 스님이 부임하고서 도량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자 생긴 일이라고. 재안 스님은 “아무도 없어야 문제가 지, 한 명만 와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두 명이면 얼마나 괄목할만한 성장이냐”고 반문했다.

“100만배 정진을 통해 1400년 사격에 걸맞는 수행풍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하나되고 소통하는 개암사를 만들겠습니다.”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지난 2월 주지로 부임했다. 스님은 3월 12일부터 100만배 정진 중이다.

이에 앞선 2월 29일 출가제일부터는 2014년 11월 25일 회향까지 천일기도를 임재했다. 2월 27일부터는 3일씩 산신기도·나한기도·지장기도 등을 마쳤다. 관음기도 신중기도 등 도량기도를 회향한 3월 11일, 재안 스님은 역대 조사 등 다례제와 우주무주교훈 영가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다.

재안 스님이 기도에 매진하는 것은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부안 개암사의 중창과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서이다. 스님은 봉은사에 주석하던 10여년 전, 판전에서 100만배 정진을 했다. 그때 부처님 전에 훗날 주지 소임을 살게 되면 다시 100만배를 올리겠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에서 포교국장·신도국장을, 총무원 직할교구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교역적 소임을 산 경력을 개암사에서 살려 호남불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

재안 스님은 기도정진 외에 개암사 중흥을 위해 당우 등 불사를 통한 도량정비와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등을 준비 중이다.

“회주 혜오 스님(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이 前 주지 소임을 보며 개암사 가람수호를 잘해줘 지역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사이버 소통과 템플스테이 지정 등을 통해 늘 대중 곁에 있는 개암사가 되겠습니다.”

재안 스님은 “지역소외계층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지역민들에게 인정 받는 개암사로 만들겠다”며 “100만배 기도 정진을 통한 포교 원력 실현으로 자성과 쇄신결사의 새 전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부처님의 고향은 네팔입니다”

부다네팔 캠페인 퍼는 시도올라 한국네팔인협회 회장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네팔이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012년 네팔 롬비나 방문의 해를 맞아 네팔 알리기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한 롬비나가 위치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아는 불자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 2007년 조계사에서 500명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롬비나가 인도에 있다고 답했으며 네팔에 있다고 답한 불자는 불과 7%에 불과했다. 힌두교와 병행해 불교를 믿는 네팔인들이 한국에 와 느낀 충격은 대단했다. 이런 와중에 불교성지인 네팔을 알고자 직접 발 벗고 나선 이가 있다. 바로 K.P. 시도올라 한국네팔인협회 회장이다.

한국네팔인협회는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큐 ‘부처님은 네팔에서 태어나셨다’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큐는 한국네팔인협회가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부다네팔 캠페인의 일환으로 네팔 정부의 2012년

롬비나 방문의 해 지정 홍보활동을 겸해 제작됐다. 시사회에는 250여 불자들이 참여해 성황이었다.

시도올라 회장은 “많은 한국인들이 부처님 고향을 네팔이 아닌 인도로 오해하고 있어 이번 영화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네팔이 교류하는데 불교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네팔관광청 한국사무소장도 맡고 있는 시도올라 회장은 “네팔 음식점만 몇 군데 있을 뿐 한국에 네팔어를 가르치는 곳조차 전무한 실정”이라며 “5

월 초 본격 가동되는 네팔하우스는 네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부터 네팔 문화 강좌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2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시도올라 회장은 이후 네팔항공사 한국지부에 일하며 관광업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네팔대사관이 2007년 문을 열며 네팔관광청 한국사무소장 등 네팔정부일도 대행하며 한국과 네팔 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에는 삼청동에 네팔 음식점을 알리는 ‘옴 레스토랑’을 열기도. 이런 공로로 2009년에는 네팔인 최초로 서울명예시민이 됐다.

이런 그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다. 바로 네팔하우스의 운영비다. 사무실은 마련한 상태지만 월 1만 원 이상을 낼 수 있는 국내 네팔인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그에게 4월 경 예정돼있는 불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롬비나 방문은 큰 힘이다.

시도올라 회장은 “한국 내에서도 롬비나를 비롯한 네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밝게 웃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1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이홍섭, 시조·고정국, 소설·박성원, 평론·문홍술 등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승)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제정한 현대불교문학상 제17회 수상자가 발표됐다.

제1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는 시 부문에 이홍섭(시인), 시조 부문에 고정국(시조시인), 소설 부문에 박성원(소설가·동국대 교수), 평론 부문에 문홍술(문학평론가·서울여대 교수), 특별상 부문에 송준영(시인·인하대 명예교수) 최동호(문학평론가·고려대 교수) 홍성란(시조시인) 박수완(시인·현대불교문인협회장) 문혜관(시인·불교문학

포교원장) 장영우(문학평론가·동국대 교수) 이승원(문학평론가·서울여대 교수)가 맡았다.

현대불교문학상은 1996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다년간 불교정진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문인을 대상으로 시·시조·소설·평론 부문과 올해는 추가된 특별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발표하는 상입니다.

시상식은 4월 2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부처님오신날 불축행사’와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조동섭 기자

청와대 문화특보에 방귀희 씨

3월 9일 대통령문화특보로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55·사진)이 내정됐다. 독실한 불자인 방귀희 문화특보 내정자는 1991년 한국 유일의 장애인 문학 계간지 ‘솟대문학’을 창간해 지금까지 장애인 문인 400명을 배출하는 등 장애인들과 한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방 내정자는 1급 지체장애인이란 신체적 한계에도 동국대 불교철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강사로 강단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 살때부터 소아마비로 두 발과 왼

손을 쓸 수 없게 된 방 내정자는 오른손 만으로 1981년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이름을 알렸다. 장애인 전용 방송인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에 첫 출연자로 섭외됐고, 이를 계기로 방송작가로 일해 왔다.

방 내정자는 2011년 불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제3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 입학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유석천)은 3월 1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3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3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에는 성불사 주지 학명스님과 정종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 보광사 주지 행문 스님, 경곡사 주지 정산 스님, 대

승사 주지 귀영 스님, 백전사 주지 무구 스님 등 30여 명이 입학했다.

행사에서는 제2기 회장 골굴사 적운 스님이 환영사를, 동국대 이사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이 ‘너희는 주불해라 나는 후불탱화하리다’를 주제로 사찰경영 전문공유시간을 가졌다. 조동섭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Buddhist Association of Uryeong (우리불교曹溪宗 종도모집).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temple building and text detailing the association's activities, including a seminar on Buddhist ethics and a collection of sutras. The tex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members.